

中國의 韓中 自由貿易協定 推進戰略과 政策的 示唆點*

구기 보** · 홍 정 루***

-
- I. 서론
 - II.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중 부문별 경쟁력과 영향
 - III. 중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 전략과 영향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I. 서론

한국은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과거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의 FTA와는 새로운 차원의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해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과의 협정이자 대외교역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그 동안 심화되어 가던 한국경제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대미 경제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협정이기도 하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숭실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전임강사

*** 청주대학교 중국통상학과 전임강사

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한국에 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성장과 기술습득 등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 체결 후 이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반영하여 종합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코스트(Cost)로 불리는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해소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외에도 2007년 5월 7일부터 EU와 FTA협상을 시작하는 등 서구와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는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2006년 현재 25개 회원국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두 국가를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EU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동유럽 회원국 확대는 새로운 EU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다소 침체된 상황에서 EU 경제는 거대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경제 성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우선적으로 서구 국가 내지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함에 따라 심화되어 가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여지를 갖게 되었다. 경제대국 중 가장 먼저 FTA 협상을 시작했던 일본과 협상이 중단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경제의 전통적 교역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FTA에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중 FT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동북지역 고대사 연구를 사회과학원에서 지방기관으로 이전하고, 최근 간행된 세계 각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책에서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하는 등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한중일 FTA를 제안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FTA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다. 한중일 FTA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일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왔다.

한중 양국간 FTA 연구는 초기에는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¹⁾ 그 후 2003년 10월 개시된 한일 FTA 협상이 2004년 11월 중단되면

1) 한중일 FTA 연구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총합연구기구(NIRA) 등 세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다.

서 한중 FTA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한중일 FTA 연구는 크게 총괄적인 연구(규범 및 제도 포함)와 개별산업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총괄적인 연구에는 한중일 FTA에 대한 필요성과 선행과제, 경제성장과 무역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무역규범, 금융서비스, 환율제도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²⁾ 그러나 한중 FTA 연구는 산학 민간연구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서야 한중 양국이 산학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이 한중 FTA 연구에 참여함에 따라 본격적인 FTA 협상을 위한 준비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한중 FTA와 관련된 연구는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특징을 통해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³⁾

-
- 2) 이창재 외b,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KIEP, 2005.
 정인교 외a,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KIEP, 2003.
 강문성 외,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2003.
 이홍식 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 KIEP, 2004.
- 3) 이장규 외,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KIEP, 2006.
 홍정륜,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중국학연구, 제39집, 중국학연구회, 2007, pp. 287-311.

< 표 1 > 한중일 FTA와 한중 FTA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 제목	연구자
한중일 FTA 총괄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2003) -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2003) -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2003)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2004)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2005) -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2003) -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인교 외 - 강문성 외 - 김준동 외 - 이홍식 외 - 이창재 외 - 고동일 외 - 왕윤중 외
한중일 FTA 산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2004) -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2005) -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2003)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2005) - 한중일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2004) -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한중일 FTA 대비 수산부문 영향 분석(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영 외 - 윤창인 - 김화섭 외 - 김박수 외 - 어명근 - 이창수 외 - 주문배
한중 FTA 총괄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2004) -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2006) -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숙영 외 - Zhang Jianping - Lee Hongshik
한중 FTA 산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태용 외

한중 FTA나 한중일 FTA 문제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 안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나⁴⁾ 본고에서는 비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

4) Ahn Choongyong, "Newly Emerging Economic Order in Northeast Asia and

고 경제적인 부분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가 주로 한중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한중 FTA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FTA 추진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중국이 그 동안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FTA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한중 FTA 추진목적과 과약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이 FTA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경쟁 우위부문과 열위부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협상과정에서 참고할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FTA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한중 FTA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으로 토대로 한중 FTA 공동연구와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중 부문별 경쟁력과 영향

1.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추이와 특징

중국은 1978년 이후 점진적이고 완만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함으로써 최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WTO 양허(concession)에 따라 상품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유통시장 등 서비스시장까지 폭넓은 개방을 하였으며, WTO 회원국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 대외교역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의 특성상 더 깊은 교역과 투자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무역협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으로서는 지역무역협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2006년 현재 홍콩-마카오⁵⁾, 칠레, 아세안, 파키스탄 등 4개국(혹은 지역)과 FTA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호주, 뉴질랜드, GCC 회원국,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 회원국⁶⁾, 한국, 일본 등과 FTA를 논의 중이다.

중국-홍콩간 지역경제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CEPA)은 중국이 체결한 최초의 지역경제협정으로 양 지역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EPA는 2002년 초 중국정부가 제안하여 2003년 6월 1단계, 2005년 1월 2단계 협정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CEPA의 내용은 주로 수입관세 면제, 서비스시장 개방,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등 세 분야로 되어있다.⁷⁾ 그 결과 1,108종의 홍콩제품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될 수 있게 되었다. CEPA 3단계가 체결된 후에는 2007년 1월부터 모든 홍콩산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입게 되었다.⁸⁾

중국-아세안 FTA는 2000년 11월 싱가포르 아세안+3 정상회담 기간 중 중국 주용기 총리가 제안하여, 2004년 11월 체결되었다. 양측은 2005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되 아세안 선발 6개국은 2010년,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까지 완전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04년 상품무역 협정을 체결한 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2007년 2월 서비스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칠레 FTA는 2002년 칠레가 먼저 제안한 후 2005년 11월 FTA 상품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10월부터 정식 실시되었다. 중-칠레 FTA에는 상품무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서비스와 투자부문에 대한 협상은 동 FTA가 정식 실시된 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5) 중국은 2003년 6월 29일 홍콩과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FT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내용상으로 FTA에 준하는 협정이므로 FTA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6) 박병인, “상하이 협력기구(SCO) 성립의 기원-상하이 5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로-”, 중국학연구, 제33집, 중국학연구회, 2005, pp. 521-529.

7) 오동윤, “중국·홍콩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협정’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제6권 제8호, KIEP, 2003, p. 39.

8) 이장규 외, pp. 43-44.

중국-파키스탄 FTA는 2004년 12월 파키스탄 총리의 방중시 중국정부가 제안하여 2006년 11월 체결되었다. 동 FTA는 양국이 두 단계를 거쳐 화물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무관세 제품 비중을 각각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양국은 시장진입, 원산지 규정, 기술적 무역장벽,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무역구제, 투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⁹⁾

<표2>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추이

국가	체결시기	발효시기	제안자	주요 동기	협정범위
홍콩	2003. 6. 2005. 1.	2004. 1.	중국	무역 및 투자 촉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아세안	2004. 11. 2007. 2. (서비스)	2005. 7.	중국	원자재 확보, 해외시장확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후타결)
칠레	2005. 11.	2006. 10.	칠레	구리 등 자원확보	상품무역
파키스탄	2006. 11.	2007. 7	중국	석유, 가스운송 중개기지	무역, 투자
호주, 뉴질랜드				우라늄 등 자원 확보	-
GCC				석유자원 확보	-

2007년 6월 현재 협상을 완료했거나 협상 중인 FTA를 통해 중국의 FTA의 특징이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칠레를 제외하면 중국이 먼저 다른 국가에 대해 FTA를 제안하였으며, 협상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¹⁰⁾ 이는 중국이 대외개방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WTO 가입 후에도 FTA를 통해 특정 국가와 심도 깊은 협력

9) 이장규 외, pp. 37-39.

10)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인도나 뉴질랜드, 호주 등 국가와의 FTA는 이들 국가가 중국산 증거가 공산품의 급격한 유입을 꺼려 다소 지체되고 있다.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중국정부의 수정통계에 의할 경우 2004년 40% 수준에서 2006년 65.7%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이미 개방경제구조로 변화된 상황에서 중국은 WTO 가입 후 확대된 대외개방을 FTA를 통해 더욱 심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홍콩-마카오 → 아세안 → 칠레 → 파키스탄의 순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홍콩-마카오와 아세안 두 지역은 중국이 FTA의 시험단계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국가로 이해할 있다. 홍콩은 물론 아세안 지역은 화교자본이 전반적으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과의 FTA를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중화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¹¹⁾

셋째,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대상을 보면 주로 아시아 지역과의 FTA를 중심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미 FTA를 체결한 동남아(홍콩, 아세안), 남아시아(파키스탄) 외에, 산학관 연구단계인 동북아(한국), 협상중인 서남아(GCC 회원국), 그 외 중앙아시아(SCO 회원국) 등 중국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을 FTA의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중심으로 하여 자원개척(호주, 남아공 등)이나 시장개척(브라질, 아이슬란드)을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해하고 있다.

넷째,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의도나 목적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석유, 희귀 광물자원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대상은 주로 아세안, 파키스탄(파이프 라인 건설), GCC 회원국, SCO 회원국,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자원확보 목적 이외에도 시장개척이나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한국, 브라질, 아이슬란드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추진 중에 있다.

11) 정인교 외b,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KIEP, 2003, pp 70-71.

2. 자유무역협정 중 중국의 부문별 경쟁력 검토

중국이 상대국(혹은 지역)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를 보인 부문이 있는가 하면 취약한 부문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중국이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비교우위 혹은 열위 부문을 살펴봄으로써 한중 FTA에서 비교우위 부문을 파악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중국-홍콩 CEPA를 통해 중국은 2004년 1월부터 273개 품목에 대해 평균 13%에 달하는 대홍콩 수입관세를 완전 철폐하였다. 특히 홍콩은 비교적 관세율이 높은 귀금속(35%), 시계와 화장품(20%) 등 부문에서 수출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반도체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휴대용 라디오 전화기, 인쇄회로, 폴리스틸렌 등 품목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우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홍콩이 더 큰 비교우위를 나타낸 부문은 상품부문보다는 경영컨설팅, 법률,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 부문이다.¹²⁾ 중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개방한 것은 중국의 WTO 양허안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을 앞두고 먼저 홍콩을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의 영향을 시험한 것에 기인한다. 반면 중국이 홍콩에 대해 비교우위를 보인 부문은 중저가 공산품이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홍콩의 대중국 수입공산품은 홍콩기업이 중국에서 가공 조립한 품목이 적지 않으며, 제3국에 수출(중개무역)하기 위해 수입하는 품목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¹³⁾

2005년 7월부터 중국과 아세안 10국은 관세율 밴드를 기준으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10년(중-아세안 6개국), 2015년까지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중국-아세안 FTA에서는 상품분야를 일반분야와 민감분야로 구분하였으며, 민감분야는 다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아세안 FTA에서는 양 지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인하기간을 5-10년까지 연장하되, 초민감품목

12) 오동윤, pp. 39-41.

13) 홍콩의 중개무역은 중국과 다른 국가간 무역통계가 큰 차이를 내도록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정식, "무역통계의 마술상자: 홍콩", 동북아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동북아경제학회, 2006, pp. 69-99.

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아세안 국가들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 대부분 고관세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⁴⁾ 농수산물은 싱가포르 외에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 > 중-아세안 민감 및 초민감 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농수산물	공산품	품목수	주요 품목
중국	42(16.1)	219(83.9)	100	종이제품, 위성수신기, 액정TV, PDP TV, 자동차
인도네시아	25(6.3)	374(93.7)	50	신발, 주방용품, 자동차
말레이시아	22(6.0)	346(94.0)	96	도자기, 유리제품, 철강, 자동차
태국	59(17.3)	283(82.7)	100	건사, 주방용품, 백미리, 자동차
필리핀	61(17.7)	283(82.3)	77	플라스틱, 유리제품, 자동차
싱가포르	2(100.0)	0(0.0)	1	맥주
브루나이	0(0.0)	100(100.0)	34	자동차

자료: 산업자원부 및 아세안 사무국, FTA 연구팀, “중국-ASEAN FTA의 주요 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무역협회, 2005, p. 15.

중국-칠레 FTA에서는 상품무역만을 협정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은 향후 논의하기로 되어있다. 중국의 관세 양허에 따르면 관세철폐 예외품목에는 쌀, 밀과 그 종자, 식용유류, 목재류, 종이류, 일부 섬유원료 등 214개 2.8%에 해당한다.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민감품목에는 칠레산 연어, 포도주, 포도, 사과와 올리브유가 포함되었다. 칠레측 민감품목에는 중국산 섬유류(전체 수입액의 50% 수준), 화학 및 시멘트 등이 포함되었다.¹⁵⁾

중국-파키스탄 FTA에서는 1단계로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양국 관세품목의 85%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그 중 36%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2단계로 추가 관세인하를 통해 무관세 제품이 양국

14) 정재화, “중-ASEAN FTA의 주요내용과 평가”, 무역협회, 2005, pp. 9-10.

15) 여수옥,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2005, pp. 2-4.

관세품목 및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주요 관세인하 품목은 축산물, 수산물, 채소, 광산물, 방직품 등이며, 파키스탄의 주요 관세인하 품목은 소·양고기, 기계전자 제품 등이다. 양국은 동 FTA와 별도로 중국의 파키스탄 금광, 구리광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원전건설에 대한 기술과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 경제·무역에 관한 5개년 개발계획이 체결되었다.

< 표 4 > 중국의 지역경제협정 추진동기 및 내용분석

국 가	협정범위	관세인하 품목과 인하율	민감부문	
			중국	상대국(지역)
홍콩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전품목 무관세	서비스무역	공산물
아세안	상품무역, 서비스무역(후타결)	대체로 2010년(10국), 2015년(5국) 관세폐지	고관세 공산물, 농수산물	고관세 공산물
칠레	상품무역	10년내 관세품목의 97% 폐지	쌀, 종이	섬유류
파키스탄	무역, 투자	관세인하	-	
호주, 뉴질랜드	-	-	낙농품	증저가 공산물

자료: 홍정륜,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중국학연구, 제39집, 중국학연구회, 2007, p. 301.

중국은 FTA 협상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부문에 대한 협정체결에 상당히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홍콩을 제외하고는 FTA 체결국 혹은 지역에 대한 서비스무역 협정 체결을 유보한 채 상품무역 협정만 체결하였다. 물론 아세안과 서비스무역 협정이 2007년 2월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상품무역 협정에 비해 3년이나 지체되었

다. 또한 투자협정 역시 중국의 투자대상국으로 검토되는 파키스탄 이외의 지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⁶⁾ 품목별로는 중국의 민감품목은 서비스무역, 고관세 공산품, 농수산물, 쌀, 종이, 낙농품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상대국의 민감품목은 섬유류를 포함한 중저가 공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기존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향후 중국의 FTA 추진 방향과 전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존 FTA 협정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협정이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는 기존협정이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따라 중국정부가 향후 협상의 방향을 다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현재 중국은 4개국 내지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그 중 칠레(2006.10)와 파키스탄(2007.07)과의 협정은 최근에서야 발효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홍콩 및 아세안과의 협정이 중국의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CEPA가 중국의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

중국의 대홍콩 무역규모는 2001년 3.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 23.7%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역규모는 특히 2004년 3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21%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대홍콩 무역증가율 추이는 중국의 무역증가율 추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증가율이 대홍콩 무역증가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중국-홍콩 CEPA 발효(2004.01.)로 양측간 무역이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측의 무역증가는 CEPA보다는 WTO 가입으로 인한 무역증가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16) 파키스탄은 중국이 중동의 원유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이나 광물자원 개발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WTO 가입 효과가 상쇄되고 CEPA 2단계(2005.01), 3단계(2007.01)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양 지역의 CEPA로 인한 교역 증대 효과는 점차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중국의 대홍콩 교역규모와 투자유치규모(단위: 억 달러, %)

연도	무역액			중국의 대홍콩 FDI 유치규모 (만 달러, %)
	수출액	수입액	합계	
1995	359.8	85.9	445.7	20,060 (53.5)
2000	445.1 (20.6)	94.2	539.3	15,500 (38.1)
2001	465.5 (4.4)	94.2 (0.0)	559.7 (3.8)	16,717 (35.7)
2002	584.7 (25.8)	107.4 (14.0)	692.1 (23.7)	17,861 (33.8)
2003	762.9 (30.5)	111.2 (3.5)	847.1 (22.4)	17,700 (33.1)
2004	1,008.8 (32.5)	118.0 (6.1)	1,126.8 (33.0)	18,998 (31.3)
2005	1,244.8 (23.1)	122.3 (3.6)	1,367.1 (21.3)	17,949 (29.8)
2006	1,554.3 (24.8)	108 (-11.8)	1,662.3 (21.6)	-

주: FDI 괄호는 중국의 전체 외자유치액에서 홍콩의 외자유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국해관 통계, www.kita.net

< 표 6 > 중국의 수출입 증가 추이(단위: 억 달러, %)

연도	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 수지	무역의존도 (%)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1998	3,239.5	-0.3	1,837.1	0.3	1,402.4	-1.5	434.7	31.8
1999	3,606.3	11.3	1,949.3	8.1	1,657.0	18.1	292.3	33.3
2000	4,742.9	31.5	2,492.0	27.7	2,250.9	35.8	241.1	39.6
2001	5,096.5	7.4	2,661.0	7.0	2,435.5	8.2	225.5	38.5
2002	6,207.7	21.8	3,256.0	22.1	2,951.7	21.2	304.3	42.7
2003	8,509.9	37.1	4,382.3	34.6	4,127.6	39.9	254.7	51.9
2004	11,547	35.7	5,934	35.4	5,614	35.8	320	59.7
2005	14,221	23.3	7,620	28.4	6,601	17.7	1,019	62.4
2006	17,611.1	23.8	9,693.2	27.2	7,917.9	19.9	1,775.3	65.7

주: 상기 표의 무역의존도는 수정통계 GDP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수정 전 통계를 기준으로 한 무역의존도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령 수정 전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4년 무역의존도는 69.8%가 됨.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판. www.kita.net

중국의 대홍콩 FDI 유치규모는 2004년 CEPA 가입 전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홍콩의 대중국 FDI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FDI가 증가하면서 홍콩의 대중국 FDI가 중국의 전체 FDI 유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홍콩 FDI 유치액이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은 CEPA 협정 중 서비스시장, 투자부문 등에 대한 개방시기가 상품시장보다 다소 늦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7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실행액 기준, 단위: 억 달러,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FDI	452 (8.5)	456 (0.5)	404 (-11.3)	407 (0.9)	469 (15.1)	527 (12.5)	535 (1.4)	606 (13.3)	724 (19.4)	695 (-4.0)

주: 2005년과 2006년 중국상무부가 초기에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는 603억, 630억 달러였으나 그 후 724억, 695억 달러로 수정하였다. 이는 새로운 산출방식에 따라 금융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포함시킨 것에 기인한다.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판. 국가통계국, 2006年全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2) 중국-아세안 FTA가 중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

2004년 중국-아세안 FTA는 CEPA와 달리 서비스무역과 투자부문을 제외한 상품무역 협정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 주요국가와 2000년 상당히 높은 수출입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에는 현저히 낮아진 수출입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후 아세안 주요국가와 무역규모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2-2003년 말레이시아와의 무역액은 50% 전후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평균 무역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3-2004년에는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간 무역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 7월 중국-아세안 FTA가 발효되었으나 동년 중국과 상대국과의 무역증가율은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WTO 가입 효과가 다소 주춤해진 반면 양측의 FTA 효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에는 싱가포르의 수출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6% 포인트 높아지고 있다.

<표 8> 중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와의 무역액 변화 추이(단위: 100만 달러,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9	1,779.1	3,050.9	1,673.8	3,605.6	4,502.2 (17.0)	4,061.1	1,435.2	2,780.4
2000	3,061.8 (72.1)	4,402.0 (44.3)	2,564.9 (53.2)	5,480.0 (52.0)	5,761.0 (27.8)	5,059.6 (24.6)	2,243.2 (56.3)	4,380.8 (57.6)
2001	2,835.7 (-0.07)	3,887.9 (-11.7)	3,221.1 (25.6)	6,204.0 (13.2)	5,790.7 (0.7)	5,128.3 (1.4)	2,337.1 (4.2)	4,713.8 (7.6)
2002	3,426.4 (20.8)	4,508.4 (16.0)	4,974.2 (54.4)	9,296.3 (49.8)	6,984.2 (20.3)	7,046.6 (37.4)	2,957.4 (26.5)	5,599.6 (18.8)
2003	4,481.9 (30.8)	5,747.0 (27.5)	6,140.9 (23.5)	13,986.4 (50.5)	8,863.8 (27.3)	10,484.8 (48.8)	3,827.9 (29.4)	8,826.8 (57.6)
2004	6,257.0 (39.6)	7,224.0 (25.7)	8,087.0 (31.7)	18,174.0 (29.9)	12,687.0 (43.1)	13,997.0 (33.5)	27,818.0 (626.7)	11,542.0 (30.8)
2005	8,351.4 (33.5)	8,437.5 (16.8)	10,606.9 (31.2)	20,096.2 (10.6)	16,632.6 (31.7)	16,516.4 (18.0)	7,820.5 (-71.9)	13,991.9 (21.2)
2006	-	-	-	-	23,188.1 (38.7)	-	-	-

주: 증가율은 통계수치를 참고로 계산한 것임.
 자료: 중국해관 통계, www.kita.net

Ⅲ. 중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 전략과 영향

1. 중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 목적과 전략

중국의 FTA 추진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동북아에서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지역안보환경 개선,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 등 정치·안보 목적 이외에 FTA의 경제적 편익, 무역블럭화가 아닌 세계무역자유화의 수단,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등 경제적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¹⁷⁾ 중국학자 Zhang Jianping은 KIEP와의 협동 연구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 새로운 시장 개척, 자원공급,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중국의 시장국가 지위문제 해결 등 주로 경제적 요인을 중국의 FTA 추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⁸⁾

중국의 FTA 추진과정을 통해 중국이 한중 FTA를 추진하는 목적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홍콩, 아세안, 파키스탄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남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한, 중-일 경제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나 EU와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

둘째, 한중 FTA는 중국의 아시아 중심 FTA를 구축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파키스탄)에서 FTA를 체결한 중국은 동북아, 서남아, 중앙아시아 등과 FTA를 추진해가고 있다. 서

17) 정인교 외a, pp. 72-79. 이창재 외b, pp.26-36.

18) Zhang Jianping,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KIEP, 2006, p. 12.

남아나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체제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는 중국의 다음 FTA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일본이 동북아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중 FTA는 중국의 FTA 전략에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중 FTA는 중국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1,109억 달러와 1,775억 달러의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은 무역마찰, 시장개방, 인민폐 평가절상 등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존 무역흑자대상국 이외에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표9>와 같이 지난 수년간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은 한중 FTA 체결시 중저가 공산품을 바탕으로 대한국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넷째,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선진 기술습득과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국은 홍콩을 제외하면 대체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들과 FTA를 체결해 왔다. 따라서 양측간 무역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선진 기술습득이나 FDI 유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과의 FTA는 중국 서비스산업이나 지적재산권 등 중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등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과의 FTA는 FTA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면서 선진 기술습득과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술한 목적 하에서 중국은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소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그 동안 중국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FTA를 통해 중국의 한중 FTA 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은 한중 FTA 체결이라는 원칙에서는 적극적이지만 개별 협상에서는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홍콩,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등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상에서 상대국의 소극적 반응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 FTA를 동북아 FTA의 교두보로 활용할 것이므로 한중

FTA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 외에도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 FTA는 2004년 중국-아세안 FTA 이후 최대규모의 FTA이며,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정부가 한중 FTA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타결 원칙 하에서도 개별 분야에서는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중국은 우선 서비스협정을 제외한 상품협정만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그 동안 체결한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과의 FTA 협정에서 서비스협정을 제외하였으며, 상품협정만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였다.¹⁹⁾ 또한 중국은 한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열위에 있으므로 서비스협정은 추후에 협상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 FTA 협정을 고려하면 중국은 투자협정에 대해 서비스협정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협정에 대한 체결을 요구할 경우 중국은 최근 변화된 외자정책의 취지에 따라 첨단설비나 기술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선별적인 특혜협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진입장벽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저가 공산품이나 농산품 등 경쟁우위 상품을 중심으로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엄격한 위생검역 등 무역장벽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중 FTA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4)은 한중 FTA 체결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중국의 추가 경제성장률(0.78%p)은 한국의 추가 경제성장률(2.52%p)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⁰⁾ KIEP에 의하면 한중 FTA로

19) “중국, FTA서 상품자유화 우선 요구 전망”<KIEP>, 연합뉴스 2006.12.28.

양국간 교역은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52~156억 달러 증가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0~67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표9>와 같이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한국이 기타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대체함으로써 대세계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될 것이다.²¹⁾ KIEP(2005년)의 추가 연구에서도 한중 FTA 체결시 중국의 추가 경제성장률(0.39~0.40)은 한국의 추가 경제성장률(2.44~2.4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 경우 한중 FTA 체결시 양국간 무역은 증가하지만 양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 표 9 > 한중 교역규모 변화추이(단위: 억 달러)

연 도		2002	2003	2004	2005
중국 통계	무역규모	440.9	632.7	899.8	1119.9
	중국의 대한 수출액	155.1	201.2	278.1	351.2
	중국의 대한 수입액	285.8	431.6	621.7	768.7
	무역수지	-130.7	-230.6	-343.6	-417.6
한국 통계	무역규모	411.5	570.2	793.5	1005.6
	한국의 대중 수출액	237.5	351.1	497.6	619.2
	한국의 대중 수입액	173.9	219.1	295.8	386.5
	무역수지	63.5	132.1	201.8	232.7

자료: www.kita.net

20) 한중 FTA 효과는 물론 한중일 FTA 효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중일 FTA 체결시 추가 경제성장률은 중국 0.89%p, 한국 3.27%p, 일본 1.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창재 외b, p. 53.

21)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KIEP, 2004, pp. 61-62.

22) Lee Hongshik,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KIEP, 2005, pp. 70-73.

중국의 대한국 FDI 유치액은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3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그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2006년 현재 38.9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관세혜택, 시장확대(한국재 수출), 고품질 원자재 확보, 경쟁력 강화 등 측면에서 한중 FTA 체결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FTA는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²³⁾

<표 10> 한중 투자규모 변화추이(단위: 건, 억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중국의 대한 투자	투자건수	1,381	1,679	2,150	2,242	-
	투자금액	10.2	16.4	22.9	26.2	-
	신고건수	442	522	595	-	-
	신고금액	2.5	0.5	0.6	-	-
중국의 대한 FDI 유치액	계약건수	4,008	4,920	5,625	6,115	4,262
	계약액	52.8	91.8	139.1	197.6	-
	실행액	27.2 (26.4%)	44.9 (65%)	62.5 (39.8%)	51.7 (-17.3%)	38.9 (-24.6%)

주: 괄호는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www.kita.net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개별 산업은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KIEP는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분야를 농업, 수산업, 노동집약적 제조업(의류, 피혁, 가구, 전기전자, 기타 수송장비 등)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²⁴⁾ 중국학자 Zhang Jianping은 한중 FTA 협상시 농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 분야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중국의 비교우위를 인정하고 있다.²⁵⁾

23) 남영숙 외, pp. 130-133.

24) 남영숙 외, pp. 140-141.

25) Zhang Jianping, pp. 26-30.

중국이 대한민국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는 대체로 중국이 다른 국가 혹은 지역과 FTA 체결시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과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이 대한민국 비교열위 혹은 민감분야는 다른 FTA 체결대상 내지 진행대상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서비스무역(홍콩), 고관세 공산품과 농수산물(아세안), 칠레(쌀, 종이), 낙농품(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 협상시 농수산물과 쌀은 오히려 중국의 비교우위품목이자 한국의 민감품목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의 대한민국 민감품목은 자동차, 전자,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중공업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주력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감에 따라 한중 양국의 산업간 무역 이외에 산업내 무역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감분야는 산업별 분석 이외에 개별 품목에 대한 분석에 따라 좀더 세분화될 수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은 한국에게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 FTA가 두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FTA가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교역증대, 양국간 상호 투자증가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 FTA가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농림어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어업 분야는 한중 FTA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상당부분 정부에서 보전(補填)해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되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한국의 산업구조는 점차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고용창출이 감소

26) 양건문 외, 전환기 중국산업과 한국산업의 진로, 산업연구원 국제세미나 자료, 2007, pp. 11-186.

하면서 실업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향후 한중 FTA 체결 과정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유의하면서 공동연구와 협상을 진행해가야 할 것이다. 우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치, 안보 등 비경제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여 경제부문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체결시 정치,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큰 수혜자가 될 것이므로 비경제부문을 고려할 경우 한국은 FTA 협상에서 경제적 이익(benefit)을 확보하는데 불리할 것이다.

또한 산학관 공동연구 과정에서 한국이 경쟁우위에 있거나 필요한 부분을 협상대상으로 적극 상정해야 할 것이다. 가령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불합리한 무역규범 수정 등을 협상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제를 협상대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에 가장 민감한 농림어업, 상당부분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FTA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투자협정을 협상의제에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중국진출기업과 신규 진출기업을 위한 세부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체결시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본국으로부터 원자재나 기계설비 도입 이외에 본국에 대한 수출에서 이익을 보게 되므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진출 기업은 중국의 외자기업정책 변화, 투자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급성장해가는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더욱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다. 한편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여 단순가공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내륙지역이나 제3국, 심지어 본국으로 철수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투자협정 체결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세인하 내지 철폐시 향후 발생할 무역수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세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시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대중국수입 증가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국협상 과정에서는 양국간 무역수지 효과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체결로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문성 외,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2003.
- 고동일 외,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 개발연구원, 2003.
- 고정식, “무역통계의 마술상자: 홍콩”, 동북아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동북아경제학회, 2006,
- 김박수 외,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KIEP, 2005.
- 김화섭 외,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산업연구원, 2003.
-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KIEP, 2004.
- 박병인, “상하이 협력기구(SCO) 성립의 기원-상하이 5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로-”, 중국학연구, 제33집, 중국학연구회, 2005.
- 徐長文, “중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과 향후 전망”, KIEP, 2004.
- 신태용 외,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5.
- 이장규 외,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KIEP, 2006.
- 정인교 외a,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KIEP, 2003.
_____ b,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KIEP, 2003.
_____ c,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KIEP, 2004.
- 2004중국경제연보: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KIEP, 2004.
- 양건문 외, 전환기 중국산업과 한국산업의 진로, 산업연구원 국제세미나 자료, 2007.
- 양두용 외,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KIEP, 2003.
- 어명근, 한중일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예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여수옥,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2005.
- 오동윤, “중국·홍콩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협정’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 제6권 제8호, KIEP, 2003.
- 왕운중 외,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KIEP, 2003.
- 유관영 외,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2004.
-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KIEP, 2005.
- 이창재 외a,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KIEP, 2004.
_____ b,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KIEP, 2005.
- 이창수 외,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KIEP, 2005.
- 이홍식 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 KIEP, 2004.
- 정재화, “중-ASEAN FTA의 주요내용과 평가”, 무역협회, 2005.
- 주문배, 한중일 FTA 대비 수산부문 영향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중국, FTA서 상품자유화 우선 요구 전망”<KIEP>, 연합뉴스 2006.12.28.
- 홍정륜,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중국학연구, 제39집, 중국학연구회, 2007.
- FTA 연구팀, “중국-ASEAN FTA의 주요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무역협회, 2005.
- Ahn Choongyong, “Newly Emerging Economic Order in Northeast Asia and Prospects for Intra-Regional Trad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Inauguration of the NEAR Foundation*, 2007.
- Lee Hongshik,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KIEP, 2005.
- Zhang Jianping,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KIEP, 2006.

ABSTRACT

The China's Strategy against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u, Kibo · Hong, Jungryun

This paper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 against the Chinese Economy of Korea-China FTA and the trend of China-launching FTAs. And then this paper intended to deduce policy implications against th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The points that Korea should consider in the process of the research and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Korea should negotiate with China only in terms of the economic sector, excluding non-economic sectors which includes politics, national securities and so on. Second, Korea should put on the lists the every possible sectors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It is essential that the sectors include services in trade, TRIPs, ect.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investment arrangements on the negotiating lists and ask China to afford a special favor to Korean investment in China. Fo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t the level of its tariff, considering the nation's trade deficit that Korea-China FTA will bring about.

Key Words : FTA, China, Korea-China FTA
